

물리치료소 단독개설 가능하도록

- 협회 보사부등 단체
기관에 탄원 -

大韓物理治療士協會(회장 金龍千)는 최근 물리치료사의 「물리치료소」(가칭) 단독개설을 허가해 줄 것을 보사부 등 관계기관에 탄원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전국 회원들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물리치료사들에게 물리치료소의 개설을 허가하여 전문적인 물리치료의 발전과 전문면허 직업인으로서 물리치료사의 기본권을 보장, 물리치료를 받는 환자와 장애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①의사의 처방전으로 이미 물리치료 행위의 단독수행 ②도서 벽지 환자에 치료혜택 확산 ③척추교정원 등 유사 및 무면허 치료행위 근절 ④심각한 물리치료사의 취업난 해소 등을 들어 물리치료소의 단독개설허가를 주장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단독개설과 관련, 「현행 지도의사가 있어야만 개설이 가능한 치과기공소나 조산소의 개설방법을 원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전에 따른 치료만 시행토록 하며 물리치료소의 시설과 치료사의 자격을 규정한다면 단독개설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용천 물리치료사협회장은 「단독개설은 면허취득 후 병원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을 가진 물리치료사가 규정된 시설과 기구를 갖춰야만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술회장은 또 「병원의 물리치료실을 현행대로 운영, 자체환자는 물론 물리치료소가 이송하는 중증환자의 치료와 물리치료사의 임상연수 역할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더욱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원서에 적극 협조하여 서명해 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동부지부

회원동정

<취업>

- 강윤경 (2646) 전순영 O.S
- 정진희 (3041) 부국병원
- 김미강 (2509) 안민병원
- 김미경 (3381) 영암병원
- 박명희 (827) 황규영 O.S
- 허진강 (2935) 강동성심병원
- 유성욱 (2921) 주몽재활원
- 최영인 (2355) //
- 정우란 (OT 79) //
- 곽문희 경만호 O.S
- 김은순 성야병원
- 강인자 (2863) 예루살렘 O.S
- 맹관철 (2565) 한대부속병원
- 심재순 (2684) 경희의료원 (한방)
- 이갑영 (1518) 인화외과
- 양희진 (2340) 신장이외과
- 박선의 (2569) 신장김외과
- 이유미 (3525) 성심의원
- 손영하 (3782) 경희의료원 (한방)
- 박재인 (2255) 성가병원
- 양미경 (2799) 경동 O.S
- 유성주 해민병원
- 박승복 해민병원

전북지부

- 제 5차 정기 보수교육
- 일시 : 1987년 10월 29일
- 장소 : 전북의대 부속병원 강의실
- 강사 : 박명식 교수님
- 연제 : 인공 관절(TKR: Total Knee Replacement)에 대하여
- 참석인원 : 70명